



S-OIL MAGAZINE  
November 2015

Vol. 408

11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공장 가족 체육대회  
본사 체육의날 하이킹

28 연료 1리터 나들이  
경북 구미 밤실벽화마을

32 섬을 걷다  
여수 사도 · 강진 가우도

42 햇살나눔  
사랑의 연탄나누기



공장 가족 체육대회



본사 체육의날 하이킹



문화예술&나눔캠페인



## 04 주요 경영활동 · CEO 동정

- 외국기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임원 워크숍
- 공장 가족 체육대회
- 본사 체육의날 하이킹
- 광고캠페인 <채우세요> '엄마웃음'편

## 12 단신

- 지배구조 우수기업상 수상
- 금호피앤비 의향서 체결
- 수원 화성문화제 구도일 등불 설치
- 인사동정

통권 제408호

발행일 2015년 11월 5일

발행처 에스-오일주식회사 광고팀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편집 · 디자인 (주)디자인소호 02-514-5164

인쇄 (주)성환인쇄 02-2273-0583

## 17 포켓 석유상식

- 생활 속 석유

18  
두런두런 수다방

- 직원 가족 여행기
- 입사 동기 여행기

22  
열정 24시

- 구미지사 권용달 사우
- Aromatics공정팀 황대진 사우

24  
No.1 주유소

- 광주광역시 망월주유소

26  
가족 이야기

- 우리 가족,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 Aromatics생산1과 우래규 사우 가족



28  
연료 1리터 나들이

- 경북 구미 밤실벽화마을

30  
내 마음의 미술관

- 광주시립미술관

32  
섬을 건다

- 모세의 기적이 벌어지는 '공룡의 땅'  
- 여수 사도 · 강진 가우도



36  
100세 습관

- 엎드리는 자세 습관

38  
나의 롤모델

-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한 행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  
- 계기와 정상혁 사우

40  
열린 서재

- <약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안시내



제1회 S-OIL 과 함께하는 해양경찰 휴(休) 캠프



42  
햇살나눔

- 사랑의 연탄나눔기
- 해양경찰 부부 휴(休) 캠프

50  
독자엽서

외국기업의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 금탑으로 빛나는 새로운 도약의 약속

나세르 알 마하서 CEO가 산업 분야 최고의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우리회사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나세르 알 마하서 CEO가 지난 10월 15일 코엑스(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열린 외국기업의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마하서 CEO는 우리회사를 이끌며 울산 정유·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에 5조 원 이상의 초대형 신규 투자를 진행하고, 모기업인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Aramco)가 우리회사 지분을 추가 인수(약 18.4억 불)하도록 투자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산업 분야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출신의 마하서 CEO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에서 22년 동안 근무하고 2012년 3월 우리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특히 향후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과 한국에 더욱 투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아람코에 적극 건의해 사상 최대 규모(약 5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우리회사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투자 사업은 단일 플랜트 공사 중 국내 최대 규모로 고용 유발 효과가 약 1만 2천 700명에 달한다. 울산 지역의 총 부가가치 유발 효과도 1조 1천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 기업들에 경쟁력 있는 기초 원료를 공급해 유관 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 값싼 전사유를 고가의 석유화학 제품(올레핀 다운스트림)과 휘발유로 전환해 연간 25억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면에서도 마하서 CEO는 지속적으로 생산시설과 운영의 효율을 개선해 올해 상반기 매출액 9조 5천163억 원, 영업이익 8천443억 원의 탁월한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률 8.9%는 국내 경쟁사뿐 아니라 세계 유수 정유사들의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우리회사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서도 해외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호주 등의 해외 판로를 확대해 괄목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생산 제품의 약 60%를 전세계 55개 국가에 수출해 올해 상반기에만 5조 6천억 원을 해외에서 거둬들였다.

임원 워크숍

## 신규 프로젝트 성공을 향한 염원

대규모 프로젝트를 향한 대장정 가운데 전 임원이 제주에서 워크숍을 열고 결의를 다졌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상세한 사항들을 논의하며 중지를 모았다.

‘2015 임원 워크숍’이 10월 27~28일 제주에서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날 개회에 따라 나세르 알 마하서 CEO는 “신규 프로젝트는 우리회사가 가장 경쟁력 있는 회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성공 DNA를 가지고 있다”며 임원들의 사기를 북돋웠다.

워크숍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이사회 승인 경과보고에 이어 프로젝트 추진전략과 일정 공유로 이어졌다. 이에 각 조직을 대표하여 임원들은 역량과 자원을 결집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차례로 내놓았다. 임원들은 각 조직의 발표내용에 귀 기울이며 상호 협력방향을 점검하고 이를 통한 시너지를 확신했다. 주요 논의를 마친 뒤 마하서 CEO는 이날 제시된 각 조직의 역할이 프로젝트 성공을 향한 중요한 자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모두의 헌신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일정은 소설 <칼의 노래>, <남한산성> 등으로 저명한 김훈 작가를 초청한 가운데 ‘위기와 변화의 시대에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한 강연으로 마무리됐다.

이튿날 워크숍 참가자들은 애월읍에 있는 노꼬메오름을 등정했다. 제주의 거친 바람을 이겨내며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임원들은 대규모 프로젝트의 성공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한결 같은 염원을 재확인했다.



공장 가족 체육대회

## 한가족 한마음으로 활력 충전!

은산공장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하는 '공장 가족 체육대회'가 지난 10월 3일 개최됐다. 대회에 참가한 2천500여 명은 팀 대항 경기와 응원전을 펼치며 활기찬 하루를 보냈다.



공장 전 임직원과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이번 대회는 공장의 안정적인 가동과 신규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혼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활력 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족과 더불어 대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 참가한 임직원과 가족 2천500여 명은 부문·부서에 따라 '구도일'팀, '드림구도일'팀, '한마음'팀, '닥터구도일'팀, '테크노삼총사'팀, '오햇살'팀으로 나뉘었다.

팀별 입장을 마친 뒤 나세르 알 마하서 CEO의 개회 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명랑운동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각 팀은 슬로건 탑 쌓기, 단체줄넘기, 줄다리기 예선을 거치며 오전 대결을 펼쳤다. 팀별 남녀 선수 10명이 참가한 단체줄넘기에서 구도일팀이 찰떡궁합으로 줄을 넘어 1위 등극의 기염을 토하며 200점을 먼저 따냈다. 오전 마지막 경기인 줄다리기 예선전에서는 각 팀에서 뽑힌 선수 50명이 단판 승부를 펼친 결과 드림구도일팀이 1위에 올랐다.

점심시간에 참가자들은 사랑하는 동료, 선후배 가족과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과 한 잔 술을 나누면서 속 깊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오후 대회는 치어리더가 이끄는 응원전으로 문을 열었다. 한마음팀은 6인7각 지네발 릴레이 경기에서 착착 맞는 호흡 속에 반환점을 돌며 1위로 응수했다. 이날 마지막 경기는 대형 바통 달리기로, 직위고하를 막론한 선수들이 출전해 대회 열기를 최고조로 이끌었다. 대형 바통을 든 채 바지 위에 반바지를 착용하고 이를 다음 주자에게 옮겨 입히며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경기 방식에 참가자 모두는 호탕한 웃음을 쏟아냈다. 배꼽 쥐는 릴레이 끝에 테크노삼총사팀이 값진 1승을 추가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공장 가족 체육대회의 최종 우승 트로피는 한마음팀이 들어올렸다. 앞서 9월에 열린 구기종목대회 점수를 합산한 결과다. 마하셔 CEO는 대회를 마무리하며 “우리 임직원의 열정과 서로에 대한 애정을 마음 깊이 느낀 하루”라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임직원들은 가족과 함께한 이날 대회를 통해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는 미래 성공에 대해 굳은 의지를 다졌다.



본사 체육의날 하이킹

# 힘찬 기운 모아 성공! 성공! 파이팅!

체육의날을 맞아 본사 임직원이 하이킹에 나섰다.  
낭만이 넘치는 열차를 탄 뒤 호명산에 오른 임직원들은 “이 맑은 기운을 모아 신규 프로젝트를 성공하자”고 외쳤다.



본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하이킹 행사가 열렸다. 10월 14일 경기도 가평군 호명산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하이킹 행사는 STLC 본사 임직원을 포함한 600여 명이 참가해 대화합의 물결을 이뤘다. 특히 전체 참가자들이 코레일 열차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면서 낭만 가득한 가을 여정을 경험했다.

행사 당일 아침 서울역에 집결한 임직원들은 경춘선 전동 열차와 ITX-청춘 열차에 올라 기차길을 달렸다. 열차 안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 강사들이 기타연주로 흥을 돋우는 가운데 폭소를 자아내는 게임으로 풍성한 선물 잔치가 열렸다.

그 사이 나세르 알 마하서 CEO와 김동철 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객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일일이 특제 간식 꾸러미를 선사했다. 꾸러미 안에는 기차 여행의 별미로 통하는 삶은 달걀과 탄산음료, 정통 크림빵 등이 담겨 소박하고 따뜻한 추억을 자극했다. 1시간 남짓 달린 끝에 상천역에 도착한 임직원들은 곧바로 하이킹에 나섰다. 호명산 정상까지 1시간 30분여를 오르자 지리한 가뭄에도 시원한 물을 품고 있는 호명호수가 시야를 채웠다. 신규 프로젝트 성공을 향해 ‘파이팅’을 외치며 단체사진을 찍은 뒤 하산행렬이 이어졌다. 그 길로 임직원들은 먹거리가 마련된 캠핑장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이날 점심식사의 백미는 부서마다 준비한 찌개였다. 밥과 기본반찬, 돼지고기 비비큐가 제공된 가운데 각 부서에서는 저마다 다른 재료로 찌개를 끓여냈다. 김치찌개, 어묵탕, 우거지해장국에 선짓국까지, 상상을 초월한 국물요리가 깊은 풍미를 자랑하자

여기저기서 탄성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각자 조리한 찌개를 바꿔 맛보고, 뜨거운 격려와 냉정한 품평을 섞어가면서 직원 모두는 한 그릇씩을 싹 비워냈다. 마하서 CEO는 각 테이블을 돌며 직원들의 숨시를 살피고 다채로운 상차림을 치켜세우면서 분위기를 북돋웠다. 이날 마련된 특별무대는 '복면가왕 콘테스트'였다. 예선을 통과한 총 8명의 복면가왕이 이날 본 무대에 올랐다. 잔잔한 발라드로 무한 내공을 자랑한 '자나 깨나 산불조심', 신나는 트로트로 좌충을 압도한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짜릿한 댄스곡으로 열창보다 춤을 선택한



'이상한 나라의 여우' 등이 차례로 불꽃 튀는 경합을 펼쳤다. 그 결과 최종 가왕에 오른 주인공은 '양칼진 백고양이'다. 영화 <겨울왕국>의 주제곡 '렛잇고'로 피날레를 장식하며 우승을 거머쥔 복면 속 인물은 김수경(브랜드마케팅팀) 사우였다. 복면가왕에 참가한 8명에게는 100만원 상당 주유상품권을 비롯해 푸짐한 부상이 주어졌다. 마하서 CEO는 재기 넘치는 무대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끈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 힘찬 기운을 모아 신규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어내자"고 격려했다. 임직원들은 뜨거운 환호로 한나절 짧은 여정의 아쉬움을 달래며 서울행 열차에 올랐다.

광고캠페인 <채우세요> '엄마웃음'편

## 상실의 시대를 향한 치유의 메시지

2015광고캠페인 <채우세요> 시리즈의 '엄마웃음'편이 10월 5일부터 전파를 타고 공개됐다. 올해 우리회사는 각박하고 힘든 사회상을 세 편의 TV광고에 잘 그려내면서 소비자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1



#2



#3



#4



#5



#6



## 'GOODOIL FAMILY'



“에쓰-오일을 채운다는 건, 행복 · 사랑 · 웃음도 가득 채운다는 것”

‘엄마웃음도 채우세요’ TV광고는 ‘채우세요’ 콘셉트의 1차 ‘가족행복’ 편, 2차 ‘연인사랑’ 편에 이은 세 번째 작품이다.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나타나는 육아를 둘러싼 갈등상황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잔잔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킹맘 증가로 조부모가 손주를 돌보는 황혼육아 가구 수는 전체 맞벌이 가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250만 가구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손주 육아에 나서는 노년층은 양육 방식을 두고 종종 자녀와 갈등을 빚곤 한다.

‘엄마웃음도 채우세요’ TV광고도 육아 방식을 두고 갈등을 빚는 워킹맘 딸과 친정엄마를 다룬다. 손주들이 TV를 보게 놔두는 할머니와 그런 할머니를 타박하는 딸이 등장한다. 이에 ‘에쓰-오일’은 소원해진 엄마와 딸의 관계회복을 위해 야외로 떠나볼 것을 권한다. ‘구도일’이 문제해결사로 나서 ‘에쓰-오일을 채운다는 건~ 엄마웃음도 가득 채우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TV광고에 대해 소비자들은 “자식들을 위해 늘 희생하시는 부모님께 고마움을 표하는 방법인 것 같다”, “광고를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TV광고 영상은 유튜브(goodoil tv)에서 조회수 약 35만 건을 기록하면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편에 이어 이번 TV광고에서도 청각적 요소를 이용한 ‘소닉 브랜딩(Sonic Branding)’ 기법이 활용됐다. ‘소닉 브랜딩’이란 소리나 음악 등을 반복해 제품이나 브랜드를 연상시키고 친숙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우리회사는 일상 속에서 주유권이 주유구에 꽂힐 때 흔히 들을 수 있는 ‘철컥’ 소리를 소닉 브랜딩 장치로 활용해 ‘철컥 = 주유 = 에쓰-오일’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도록 했다.

올해 TV광고에서는 주인공인 ‘구도일’과 더불어 ‘구도일 패밀리’인 새로운 가족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아빠 ‘구대디’, 엄마 ‘오드리’, 여동생 ‘구미소’, 애완견 ‘구메롱’ 등 ‘구도일 패밀리’는 이 시대 엄마 아빠들의 자화상으로 광고에 대한 재미와 공감을 더한다. 나아가 ‘구도일 패밀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를 거듭해 현재 구도일,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여동생, 애완견은 물론 구도일의 전용 자동차인 ‘송승카’로 구성돼 있다. 우리회사는 ‘구도일 패밀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3차원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가운데 첫 번째 에피소드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11월 중 공개하며, 올해 연말까지 총 5~7편의 에피소드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선정



우리회사가 한국거래소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주최한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에서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1천958개사중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은 국내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과 지배구조 개선의 성과를평가해 수상 기업을 가리며, 올해는 유가증권 상장법인 3개사 및 코스닥 상장법인 2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우리회사는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충실히 공시해 투자자들간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최우수기업 선정으로 우리회사는 지난 2012년 이래 4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는 지배구조 우수기업 시상이 시작된 이래 유가증권 상장 기업으로는 유일한 사례다.

이승건(지속가능경영팀)

## 내항 장기계약 선주 초청 간담회



물류부문이 10월 22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내항 경질유 · LPG 장기계약 선사의 선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류열 사장과 임희승 상무를 비롯해 우리 제품의 내항 운송을 최대 20년 이상 담당해온 선사를 포함해 6개 선사의 선주들이 참석했다.

류열 사장은 우리 제품의 안정적 수급과 선박 안전 운항을 통해 우리회사가 내수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오는 데 기여한 선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했다. 선주들은 상호 굳은 신뢰를 재확인하는 자리로 간담회를 마려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우리회사는 선주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으로 동반성장을 실현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하중태(운선팀)

## 금호피앤비 의향서 체결



우리회사가 금호피앤비화학과의 제품 수급 협력 강화를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조인식은 지난 10월 6일 류열 사장과 금호피앤비화학 문동준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사 이사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번 의향서는 금호피앤비화학의 공정 증설로 인한 벤젠 수요증가에 따라 우리회사가 계약 물량을 증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로써 우리회사는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계약물량 증대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양사는 이번 조인식을 통해 상호 안정적인 공급처와 수요처로서 협력을 지속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석유화학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의 발판을 함께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오초희(석유화학제품팀)

##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 월드 기업 선정



우리회사가 6년 연속으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이하 DJS)의 DJS월드 부문에 편입돼 인증패를 받았다. 오일·가스 산업 분야에서 6년 연속 DJS월드 기업에 선정된 것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유사 중 처음이며 유일한 사례다. 또한 국내 정유 및 석유화학 회사 중 DJS 월드에 선정된 기업은 당사가 유일하다.

10월 28일에 한국생산성본부와 S&P다우존스 인덱스(주), 로베코샘이 함께 개최하는 DJS국제 콘퍼런스에서 우리회사를 포함해 57개 지속가능성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국내 50여 대기업과 해외 기관에서 총 500여 명이 참석했다. DJS월드 지수는 전 세계 상위 2천500대(유동자산 시가총액 기준)기업의 지배구조, 사회공헌도 등을 토대로 기업을 평가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사회책임투자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2천495개 평가 대상 기업 중 317개 기업이 DJS월드 지수에 편입됐으며, 그중 한국 기업은 21개다.

이승건(지속가능경영팀)

##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례발표 대회 우수상

환경부가 주최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회사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회는 10월 29일 국립생태원(충남 서천군 마서면)에서 환경부와 전국 지방환경청,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회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회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비상대응조직을 마련하고 온산공단 사업장 공동으로 화학사고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낙동강 유역에서 민관군 합동 화학사고 대응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스마트(SMART) 프로그램' 협약을 맺어 벤젠 배출량 저감 노력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울산지역 화학안전협의회를 통해 화학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김훈장(환경관리팀)

## 공정 엔지니어 'Refinery Academy' 심화 교육

엔지니어의 조기 전력화와 기술역량 제고를 위한 'Refinery Academy' 심화 과정이 엔지니어링연구소(이하 EDRC) 주관으로 지난 9월과 10월 2차에 걸쳐 진행됐다. 대리급 엔지니어 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9월 22~23일 '공정 설계의 기초'에 이어 10월 6~7일 '기기·장치 설계' 과정으로 구성됐다. 교육을 이수한 직원들은 감사진과 교육진행 등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EDRC는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으로 2014년 설립된 기관이다. EDRC는 현재 전국 45개 기업 및 28개 대학과 국외 우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교육, 기술지원 프로그램, 국내외 인턴 프로그램, 가상현실 플랜트 교육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창성(기술교육팀)

## 인천저유소 마케팅총괄 안전순회



인천저유소가 10월 20일 임원 안전순회(Safety Walk-through)를 실시했다. 이번 안전순회에는 류열 사장과 임희승 상무를 비롯한 송호성 저유소관리팀리더, 김은룡·김덕순·신동일 인천·군산·영천저유소장이 참가했다. 임직원들은 탱크개방 점검용 밀폐공간 상시 가스측정 장비와 이동식 CCTV 등 안전을 위해 인천저유소에 도입된 안전 개선장비를 면밀히 살펴봤다.

류열 사장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저유소의 다양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임직원과 협력업체, 수송운전원 등 모든 저유소 관계자들에게 투철한 안전의식을 당부했다. 물류부문 임직원들은 향후 지속적인 안전순회로 각 저유소의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수준 높은 사고예방 활동을 펼쳐 무재해 사업장을 실현할 것을 다짐했다.

박석현(인천저유소)

## 수원 화성문화제 구도일 등불 설치

유서 깊은 지역 축제 현장에서 '구도일'과 '구미소'가 등불로 빛났다. 우리회사는 10월 8~11일 열린 수원 화성문화제 등불축제에 구도일 등불을 설치하고 관람객을 맞이했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을 위시해 반세기 넘게 지속돼온 축제다. 올해 현장에는 48만 명의 관람객이 운집해 구도일 등불과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겼다. 이어 오는 11월 6~22일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빛초롱 축제에도 구도일 등불이 설치된다.

강주혜(브랜드마케팅팀)



## 구도일 패밀리 경품대잔치

올해 두 번째 경품행사로 '구도일 패밀리 경품대잔치'가 시행되고 있다. 이번 경품행사는 황금구도일의 행운을 거머쥐는 1등 당첨자를 비롯해 총 62만여 명에게 당첨 행운이 돌아간다. 이와 함께 신규회원 이벤트도 진행된다. 행사기간 중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주유실적이 있는 경우 선착순 2만 명의 고객에게 모바일 주유 3천 원권을 증정한다.

행사 기간 2015년 11월 1~30일

응모 방법 전국 계열주유소 · 충전소에서 4만 원 이상 주유하거나 2만 원 이상 충전하고 보너스카드에 적립할 경우 자동 응모 (즉석에서 영수증으로 당첨 여부 확인 가능)

김태영(브랜드마케팅팀)



행사명	아이템	당첨자
현장당첨	황금구도일(75g)	1명
	1년 주유포인트(200만)	3명
	김치냉장고	5명
	구도일 얼굴 쿠션	2천 명
	진라면 순한맛 3개입	30만 명
	핸드크림	30만 명
신규회원 이벤트	모바일 주유 3천 원권	2만 명

## 윤활유 · 윤활기유 고객 대상 기술세미나



윤활유 수출 대리점과 윤활기유 국내 고객사 대상의 기술세미나가 10월 2~3일과 15~16일에 각각 울산 · 부산과 전북 무주에서 진행됐다. 윤활기유국내영업팀은 우리 제품과 생산 공정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넓히고 기술동향 공유, 시장 여건에 대한 의견 교류 등으로 판매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기술세미나를 마련했다.

윤활유 수출 대리점 기술세미나에는 8개사 대리점 대표자를 포함한 20여 명이 참석해 STLC 공장, 물류센터 등을 차례로 둘러보며 윤활유 제품과 물류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한편 윤활기유 국내 고객사 기술세미나에는 25개사에서 50여 명이 참석해 우리 윤활기유에 대한 정보와 산업유 동향, 윤활유 수요 전망 등을 접했다. 고객들은 세미나 종료 뒤 유익한 정보를 얻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고마움을 전했다.

윤홍식(윤활기유국내영업팀)

## 정유영업본부 공정거래교육

정유영업본부 임직원 대상의 공정거래교육이 10월 20~23일과 26일에 시행됐다. 올해 교육은 업무 특성을 감안해 본사와 지역본부의 내용을 다르게 구성한 가운데, 중부지역본부를 필두로 동부지역본부, 본사, 서부지역본부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총 268명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정유영업본부 이외의 본부에서 20여 명이 참석해 공정거래 관련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정유영업본부는 공정거래 관련 규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공정거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성진(영업전략팀)



## 임원동정

### 승진 및 보직변경

- 10.19** 박봉수 수석부사장(운영총괄)→사정(대행, 운영총괄)  
 류열 수석부사장(마케팅총괄)→사정(대행, 마케팅총괄)  
 김동철 수석부사장(관리총괄, CEO Deputy for Government Affairs & Business Relations)→사정(대행, 관리총괄)  
 조영일 부사장(재무본부장, CFO)→수석부사장(대행, CFO)  
 안종범 부사장(전략기획본부장)→수석부사장(대행, 전략기획총괄)  
 이영백 전무(Reliability/기술본부장)→부사장(대행, Reliability본부장)  
 박성우 전무(법무/컴플라이언스본부장)→부사장(대행, 법무/컴플라이언스본부장)  
 방주완 전무(Treasurer)→전무(재무본부장)  
 김형배 전무(대행, RUC본부장)→전무(RUC본부장)  
 이상열 상무(송유/동력공정장)→전무(Aromatics생산/Off-Site본부장)  
 박승구 상무(신사업부문장)→전무(대행, Biz이노베이션본부장)  
 김서일 상무보(Reliability/기술부문장 보좌역)→상무보(송유/동력공정장)  
 신관배 상무보(CEO실 팀리더)→상무보(CEO실장)  
 김명수 상무보(관리회계팀리더)→상무보(Treasurer)  
 손봉기 책임법무원(준법지원인)→상무보(준법지원인)  
 이정익(1급, ODC추진팀리더)→상무보(프로젝트추진부문장)  
 이민호 부사장(글로벌마케팅/사업개발 Specialist)→부사장(석유화학/유행영업본부장)  
 신현욱 부사장(생산본부장)→부사장(정유생산본부장)  
 강선재 전무(CEO보좌역)→전무(Chief Engineer)  
 오석동 상무(관리지원본부장 보좌역·노사)→상무(운영총괄 보좌역)  
 장순철 상무보(기술부문장)→상무보(정유생산관리부문장)  
 김태기 상무보(프로젝트기술부문장)→상무보(프로젝트기술부문장 겸 프로젝트건설부문장)  
 이영진 상무보(ODC Vice PM 겸 전략기획본부장 보좌역·올레핀 사업)→상무보(신사업부문장 겸 ODC Vice PM)  
 임덕순 Special Assignee(Site Preparation Project Manager)→Special Assignee(Support for RUC)

- 10.20** 방양정 상무(동부지역본부장)→전무(대행, 동부지역본부장)  
 정백조 상무(프로젝트구매부문장)→전부(대행, 프로젝트구매부문장)  
 김학용 상무(Controller)→전무(대행, Controller)  
 신진영 상무(석유화학부문장)→전무(대행, 석유화학부문장)  
 서강돈 상무(인사부문장)→전무(대행, 인사부문장)  
 송찬주 상무보(프로젝트관리부문장)→상무(대행, 프로젝트관리부문장)  
 양휘태 상무보(공무부문장)→상무(대행, 공무부문장)  
 김용보 상무보(설비관리부문장)→상무(대행, 설비관리부문장)  
 장순철 상무보(정유생산관리부문장)→상무(대행, 정유생산관리부문장)  
 김태기 상무보(프로젝트기술부문장 겸 프로젝트건설부문장)→상무(대행, 프로젝트기술부문장 겸 프로젝트건설부문장)

### Contract Staff 임명

- 11.1** 김용연 전무(대행, 생산부문지원장)→Contract Staff(생산부문지원장)

### 부음

- 10.7** 류열 사정(마케팅총괄) 빙부상

### 결혼

- 11.15** 이영백 부사장(Reliability본부장) 딸 결혼

## 인사동정

### 팀리더(대행) 임명

- 10.19** 황진현(2급, 공무부 설계2과장)→프로젝트건설팀리더(대행), 최용훈(2급, Site Preparation부문)→프로젝트건설2팀리더(대행), 최홍근(2급, 프로젝트구매팀)→프로젝트건설3팀리더(대행), 황산익(2급, ODC추진팀)→ODC추진팀리더(대행), 윤종호(2급, 소매관리팀)→해외지사관리팀리더(대행), 정연태(2급, 관리회계팀 예산관리파트리더)→관리회계팀리더(대행), 조태현(2급, 자금운영팀)→자금운영팀리더(대행)

### 파트리더 임명

- 10.19** 광영훈(2급, 프로젝트구매팀)→프로젝트구매팀 프로젝트계약파트리더, 이화영(2급, CEO실)→CEO실 커뮤니케이션역량강화파트리더, 허상훈(3급, 관리회계팀)→관리회계팀 예산관리파트리더(대행)

### 보직변경

- 10.5** 한도원(5급, 프로젝트기술2팀)→프로젝트기술팀  
**10.19** 박기홍(1급, 품질관리부장)→정유품질관리부장, 김창식(1급, 품질보증팀리더)→Aromatics품질관리부장, 이영호(1급, 프로젝트구매부문 팀리더)→프로젝트구매관리팀리더, 최형주(1급, 자금운영팀리더)→프로젝트원기관리팀리더, 윤종열(1급, 설비관리부문 Machinery Specialist), 오경환(3급, Site Preparation부문), 송민근(5급, Site Preparation부문)→프로젝트건설2팀, 유승현(4급, 프로젝트기술1팀)→프로젝트건설3팀, 차지훈(4급, Site Preparation부문)→프로젝트건설팀, 최병원(2급, 프로젝트구매팀) 박태우·

이용기·임석규(5급, 프로젝트구매팀)→프로젝트구매관리팀, 정기수(2급, 유행영기유해외마케팅팀), 신수연(4급, 해외마케팅전략팀), 이민재(5급, 석유화학운영팀)→해외지사관리팀, 이회일(2급, 관리회계팀), 이소호(2급, 프로젝트금용팀)→프로젝트원기관리팀, 이원(2급, 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정유품질관리부 정유품질관리과장, 윤광수(2급, 품질보증팀)→정유품질관리부 정유품질보증과장, 고태훈(2급, 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장)→Aromatics 품질관리부 Aromatics품질관리과장, 정우왕(2급, 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장)→Aromatics품질관리부 Aromatics품질보증과장, 이현웅(5급, 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전세영(품질보증팀)→정유품질관리부 정유품질보증과, 황덕성(4급, 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홍준호(5급, 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Aromatics품질관리부 Aromatics품질보증과, 최상길(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선임계장) 이형석·김진은(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교대계장), 박종근(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선임계장)·김중주·김준태·최종필(품질관리부 품질관리1과 교대계장), 박병규(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정유품질관리부 정유품질관리과 교대계장, 남보환(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교대계장)·방성환·김선현·강두한·도홍식·정재욱(품질보증팀)·김형우·박현태·이정욱·장경환·최현욱·김상인·김도기·여창호·전명환·김성호·이상근·진형우·서정현·박영욱·배유기·허성주·박정호·어교선·곽진섭·이재현·정바울·최기봉·김대현·김충천·신현호·정우재·이성범·최재욱(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박욱기·박기철·유중욱·이재현·조일출·김병훈·안장호·이석호·신원범·이달호·김승혁·최현태(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정유품질관리부 정유품질관리과, 최형욱(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선임계장)·이동찬·김준목·김도영(품질보증팀)·박길별·양귀범·최태수·이봉준·심재범·박철웅(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이종신·박재현(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정유품질관리부 정유품질보증과, 장영지·석광영(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 교대계장)·김유신(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박재택(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Aromatics 품질관리부 Aromatics품질관리과 교대계장, 이광호·김영식·김경교·신창용·한병채·홍해명·김수환·박태현·이명석·이상훈·황준영·이승훈·이준우(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정병일·김경호·김시진·김계록(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Aromatics품질관리부 Aromatics품질관리과, 황천섭(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 선임계장)→Aromatics품질관리부 Aromatics품질보증과 선임계장, 양병훈·강일권·송영철(품질관리부 품질관리과)·최승필·육창화·최호성·김종길·박홍식·김동춘·서해춘·전동렬·조정윤(품질관리부 품질관리2과)→Aromatics품질관리부 Aromatics품질보증과, 이병택(7기부 기계2과)→7기부 예방정비과, 정종원(분해3부 수소3과)→분해3부 정유3과

- 11.2** 조창기(2급, 생산구매지원팀), 김순미(3급, 구매팀)→프로젝트구매팀, 권택갑(2급, 생산구매지원팀)→구매팀, 김상경(2급, 구매관리팀)→생산구매지원팀, 이지혜(4급, 구매팀)→구매관리팀, 김상범(5급, 특수제품영업팀)→프로젝트금용팀

### 입사

- 10.7** 서희영(3급, RUC추진팀)

### 정년퇴직

- 10.31** 광동근(2급, 직영주유소관리팀) 이용휴(일반사무직급, 구매관리팀)

### 퇴직

- 10.8** 이종경(대리, 분해3부 정유3과), 남경목(5급, 감사부 감사2과)  
**10.26** 백중원(4급, 감사팀)

### 결혼

- 10.18** 심병석(영업전략팀) 최재무(유행영1과)  
**10.24** 남보환(품질관리과) 아들  
**10.25** 김창현(계기1과)  
**10.31** 윤홍식(유행영1과) 부인  
**11.1** 심문보(유행영1과) 부인  
**11.7** 이용무(강릉지사) 아들  
**11.14** 정상진(제품운영1과) 아들  
 황덕성(Aromatics품질보증과) 이지혜(연료연구팀)  
**11.15** 정요운(탈황1과)  
**11.22** 김중호(해상출하과) 아들  
**11.28** 박지후(광고팀)

### 부음

- 10.2** 이봉준(품질관리과) 빙모  
**10.3** 이상근(LPG팀) 모친  
**10.8** 홍준호(품질관리과) 외조모  
**10.10** 최홍열(목포지사) 부인  
**10.16** 조지현(제품운영1과) 부친  
**10.17** 박주용(수소과) 조모  
**10.20** 김병준(PX생산1과) 조부  
**10.26** 최윤진(인천지사) 부친  
**10.27** 이원택(동력4과) 빙부  
**10.29** 양경문(창원지사) 모친

## 생활 속 석유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여기에는 석유와 무관해 보이는 화장품, 세제, 비료, 의류, 심지어 베이킹소다도 포함된다.



### 석유제품의 주원료인 납사(Naphtha)

지하나 해저에서 발견한 원유는 여러 가지 탄화수소(C<sub>x</sub>H<sub>y</sub>)의 혼합물인데, 이것들을 온도에 따라 분리·회수할 수 있다. 정제 과정을 거치면 원유는 납사와 LP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기타 잔사유로 분리된다.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는 원유의 정제과정에서 분류되는 납사(Naphtha)다.

올레핀, 아로마틱 등의 중간제품을 다양한 방법으로 합성하고, 용도에 맞게 첨가제와 혼합하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석유합성제품이 만들어진다.



### 입고 먹고 바르는 모든 것

실제 우리 일상 속에서 석유제품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게 플라스틱 제품이다. 반찬통이나 음료수 병처럼 무언가를 담는 용기, 대부분의 전자기기, 휴대폰, 사무용품, 부엌용품 등 수많은 물건의 외피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플라스틱이다.

친숙한 의류 재질인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나일로도 합성섬유로 만든 것이다. 특히 요즘은 폴리에스테르를 이용한 제품이 많아지는 추세인데, 석유를 덮고, 입고 다니는 셈이다.

샴푸, 입욕제, 화장품 역시 거의 모든 제품이 석유화학물질로 만든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샴푸에는 세정력과 용해성을 위한 석유 계면활성제가 포함된다. 요즘 많이 이용하는 보습용 화장품에 들어가는 하이루론산, 글리세린 등의 성분도 알고 보면 석유제품이다.

소염진통제로 흔히 복용하는 아스피린 역시 석유추출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아스피린은 오래 전부터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세틸살리실산을 주성분으로 사용해 왔는데, 1874년 독일 화학자 헤르만 콜베가 살리실산을 합성하는 데 성공하면서 석유추출성분이 쓰이기 시작했다. 석유에서 추출하는 벤젠이나 페놀에 이산화탄소를 결합시켜 살리실산을 합성해 내고 이를 다시 화학처리(에스테르화 반응), 아스피린(살리실산메틸)이란 이름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 두런두런 수다방

사우들의 일상과 행복이 담긴 사연을 소개합니다

# 제주 둘레길에서

# 바라본 바다

## 직원 가족 여행기

글 서형주(석유화학마케팅전략팀)

지난 9월 집중휴가를 제주도에서 보냈습니다. 먼저 들렀던 전주에는 낮과 밤이 다른 한옥마을과 먹거리 천국이었던 길거리 음식점들로 기억에 남습니다. 제주도는 언제나 좋지만 캠핑족에게는 천국 같은 곳입니다. 우도와 비양도, 협재해수욕장, 이름 모를 작은 해변들 곳곳이 아직 눈에 선합니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한 여행이라서 두고두고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 조금은 특별한 캠핑족의 제주도 여행

전주에서 이들을 보내고 제주도에 입도하는 날. 바로 우도로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바람 때문에 배가 뜨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플랜 B'가 있었습니다. 오백년도 넘는 비자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나무들로 뽀뽀한 숲을 이루고 있는 비자림. 여름에 오면 더 시원하고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초가을에도 역시 좋았습니다. 제주에서 첫날밤을 보내기 위해 유명하다는 모구리해수영장에 갔지만 '루프탑 텐트'라고 출입을 거절당했습니다. 바닥에 텐트를 칠까도 생각했지만 첫날엔 루프탑 텐트를 이용하고 싶어 표선해비치 해변

으로 이동했습니다. 야영장에 텐트 네다섯 동이 있었지만 차량 진입이 안 돼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뒤쪽에 넓은 주차장에 텐트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 엄마는 저녁놀이, 아빠는 잡자리 준비. 제주에서의 첫날밤은 소꿉놀이처럼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해비치 주차장에서의 야영은 그리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태풍이 몇 차례 지나간 것처럼 엄청난 바람소리에 차까지 들썩거리며 몇 번이나 잠에서 깰했습니다. '이러다 차가 뒤집히는 게 아닌지' 별별 걱정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비자림에서 나오다가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습니다. 넓은 대지에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이 한가로워 보였다. 김녕 성세기로 돌아와서 다시 루프탑 신세를 짓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어제보다 바람이 덜 불었습니다. 아이들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김녕 성세기 해변 근처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아이들과 달리 폭신한 침대 생각이 조금씩 났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리조트에서 묵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행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로 하고 침대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 예상치 못한 열쇠 분실 사건

다음날에는 제주 올레길 중에서도 경치가 아름답다는 서우봉 둘레길에 올랐습니다. 경사가 가파르지도 않고 쉬엄쉬엄 서우봉에 오르면서 함덕해변과 에메랄드빛의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정해놓은 일정 없이 쉬고 싶으면 쉬고, 배고프면 먹으면서 정말 한가롭게 제주를 느꼈습니다. 리조트에서 짐을 정리하고 바람 때문에 번번이 포기했던 우도행에 올랐습니다. 며칠 만에 우도로 향하는 여객선이 운행을 재개하자 작은 섬은 관광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곳곳에 해안도로를 달리면서 아름다운 경치가 발길을 잡으면 멈춰 쉬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목적지는 캠퍼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섬안의 섬 '비양도'였습니다. 비양도는 거센 바람으로 악명이 높는데, 이날은 운 좋게도 바람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비양도는 삼면이 바다라서 일출, 일몰을 다볼 수 있고, 운이 좋으면 돌고래 떼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손꼽아 기대해온 장소인데, 위에 말한 세 가지를 하나도 못 봤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루프탑을 펼친 장소가 나름 근사하고, 이웃집 아저씨도 멋진 바이크캠퍼더군요.

우도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아쉬워 스노쿨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름다운 물속 풍경에 정신이 팔린 것도 잠시, 나와서 씻으려고 보니 차 열쇠가 없었습니다. 열쇠를 바지주머니에 넣어 둔 채 물속을 오가다가 잃어버린 듯했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하니 물에서 차도로 연결이 안 된 곳은 출동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결국 열쇠가게를 수소문해서 겨우 차문을 열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우리의 캠핑은 이후로도 계속됐습니다.

계속 이어질 것 같았던 2주간의 휴가도 끝이 보였습니다. 휴가 마지막 날인 9월 19일 국립생태원을 둘러보고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에 돌아온 집이 정말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올해 집중 휴가는 정말 실컷 놀았습니다. 그런데 또 놀러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서

입사 5년차 동기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이야말로 순수 자유 여행에 가장 가깝다고 느낄만한 일정이었습니다.

울산에서 출발해 김해 공항을 지나는 도중 바다 멀리 대마도가 보였습니다. 기분 좋은 여행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을 안고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야쿠시마 여행은 트래킹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더 설레었습니다.

첫째 날 일본 후쿠오카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전철을 타고 하카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에서 신칸센(고속철)을 타고 가고시마에서 하차, 다시 노선전철을 타고 호텔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동기 중 한 명이 이동 중 “내 가방?”이라고 외치며 가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메고 있던 가방을 신칸센에 놔두고 내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가방 걱정을 뒤로 한 채 나중에 호텔에서 대책을 찾기로 하고 계속 이동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안내데스크에 기차표를 보여주며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다행히 가방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주 목적지인 야쿠시마를 가기 위해 쾌속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우리가 야쿠시마에서 묵었던 민박집은 2층짜리 건물로 1층엔 작은 조리시설이 있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삼겹살 파티를 하곤 했는데, 뱀새에 이끌려 기웃거리던 일본인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7천 년 세월을 버틴 삼나무 ‘조몬스기’와의 만남  
야쿠시마는 오래된 삼나무로 유명한 섬으로, 영화 원령공주(모노노케 히메)의 모티브가 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날 트래킹은 3시간 동안 야쿠스기랜드(1천 년 이상 된 삼나무 군락지)를 걷는 코스로 자연 보존이 잘되어 있어 원숭이나 사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만난 사슴은 손을 내밀었더니 피하지 않고 혀로 핥기까지 했습니다.

우정이  
새록새록

일본  
나들이

입사 동기 여행기



돌째 날은 삼나무 조몬스기(수령 7천200년)를 보기 위해 약 10시간 넘는 산행을 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등산로 입구에서 바라본 새벽하늘은 별을 뿌려놓은 듯했습니다. 달보다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며 이번 여행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철길을 따라 계곡을 지나면서 여러 다리를 건너고 가파른 등산로를 지나고 나서야 조몬스기를 만났습니다. 조몬스기를 보면서 문득 '한 자리에 3천 년 동안 있으면 어떨까' 라는 엉뚱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산하는 길에 우리는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피로를 풀고 여유를 즐겼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으면서 여유롭게 내려왔습니다. 민박집에 돌아와서는 동기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7천 살' 먹은 조몬스기를 본 감동이 남아서일까요. 어렵게 생각했던 트래킹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때문일까요. 야쿠시마를 떠나는 배에서 뭔가 그 곳에 두고 온 것 같은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동기들과 함께해 더욱 유쾌한 여행**

아쉬움에 여행 계획에 없던 이브스키를 가기 위해 우리는 다시 완행기차를 탔습니다. 우리나라 땅끝마을 해남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기차 안에서부터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외진 곳이었습니 다. 이브스키역에 도착해서는 이색온천인 모래찜질 온천을 즐겼 다. 따뜻한 모래를 몸에 덮고 약 15분 정도 찜질을 하는 것인데, 개운한 느낌이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해변의 천장이 덮여 있어 하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대했던 따스한 햇볕, 산들산들한 바람, 정겨운 파도소리를 충분히 만끽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습니다. 동기들과의 여행은 항상 유쾌합니다. 여행 도중 깜짝 이벤트로 일본인에게 '가장 일본인답게 생긴 사람, 가장 한국적으로 생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두 번 모두 동일 인물들이 당첨되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자유여행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동기들과 함께 한 덕분에 더욱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고 모험적인(?) 여행을 또 하고 싶습니다.



열정 24시

열정으로 회사의 앞날을 밝히는 사우들을 소개합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 영업 현장의 시간 속에서

### 지혜를 구미지사 권용달 사우 쏟아갑니다

#### 회사와 성장을 함께한 나는 행운아

입사해서 포항지사에서 15년, 대구지사에서 8년, 구미지사에서 2년가량을 보냈습니다. 영업에는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운이 좋게도 가는 곳마다 재도약하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모두가 한 뜻으로 힘을 모은 동료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25년간 근무하면서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미 지역은 공단 입주업체와 주변 협력업체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규제 완화로 많은 기업이 수도권으로 옮겼거나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상황에서도 우리회사 제품의 품질을 믿어주는 고객이 있고, "달리재! 정상으로, 구미지사 파이팅!!"이라는 구호 아래 힘차게 현장을 누비는 지사 동료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 “속으로 강해지십시오.

#### 겉으로는 한없이 부드러워지십시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아쉬운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목소리를 키우기보다 듣는 귀를 키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으로 강해져야겠지요? 내가 강해져야 하고 지사가 강해져야 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걸 동료와 후배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바깥활동 하는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아내에게도 부드러운 말 한 마디 건네고 싶습니다. 많이 노력했지만 분명 부족했을 겁니다. 곧 군대 가는 첫째 아들과 고3인 둘째 아들과는 짧은 시간이라도 더 함께하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 마케팅총괄 우수사원 표창
- 계열 및 비브랜드(non-brand) 신규 유치를 통해 지사 판매 증대에 기여

## 마라톤 하듯 긴 호흡으로

### 미래를 봅니다

Aromatics공정팀  
황대진 사우

#### 소통으로 뭉치는 젊은 팀

Aromatics공정팀은 아주 젊은 팀입니다. 그래서인지 서로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갑니다. 대화가 많을뿐더러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체 세미나도 열고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업무와 기술에 대한 얘기 외에도 평소에 하지 못한 개인 얘기도 나누게 돼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덕분에 힘든 때에도 항상 웃고 팀워크가 좋습니다.

부서에서 저는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입사 5년차를 바라보면서도 아직 시행착오를 겪는 등 스스로 모자란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후배들을 챙기려니 제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됩니다. 부담감도 있었지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성장해나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고 얻는 게 많습니다.

#### 근무한 햇수보다 근무할 햇수가 많기에

올해는 정기보수로 바빴습니다. 개인시간이 부족했지만 성장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한때는 마라톤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마라톤에서 배운 게 있다면 긴 호흡으로 먼 거리를 달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가 는다고 실력이 크는 건 아니다. 현장에서 바쁠 때 놓치기 쉬운 엔지니어로서의 소양을 키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교훈을 잊지 않고 멀리 바라보고 배우면서 선·후배 동료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 운영총괄 우수사원 표창
- 폐열을 회수해 활용하는 에너지 절감 아이디어를 제시해 이익 개선에 기여



No.1 주유소

전국 주유소를 찾아  
성공 전략을 들여다봅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직원 향한  
배려가

고객 미소  
부릅니다

광주광역시 망월주유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온  
직원이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주유소가 있다.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을  
향해 건강한 미소를 던지는 직원들이 있는 곳. 광주광역시의 망월주유소를  
찾아가 보았다.



왼쪽부터 박명진 주유원, 유성운 소장, 조영무·박세진 주유원



**대표님이 배달 제일 잘 나가**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사이 대로변에 위치한 망월주유소는 들어서면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주유소다. 산뜻한 주유소의 분위기는 물론 직원들의 건강한 미소가 끊이지 않아 자동차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덩달아 에너지를 얻는다.

“저희 주유소는 젊은 직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두 같은 동네의 형, 동생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더 생동감 넘치고, 정감이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유 복장 또한 따로 맞춰서 우리만의 역동성을 강조했죠.”

김형걸 대표는 처음 주유소를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등유나 경유 배달 같은 주유소의 굵은일을 도맡아서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직원들을 위한 배려가 남다른 김형걸 대표 덕분에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밝다.

“대화가 많고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하는 주유소 분위기 덕분에 직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다른 주유소나 충전소를 다니면서 유심히 살펴봅니다.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며 우리 주유소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항상 고민하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공유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발전하는 주유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성은 소장 미니인터뷰**



**망월주유소는?**

망월주유소는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사이에 놓인 29번 국도 대로변을 지나는 곳에 있습니다. 특히 담양에서 광주로 출퇴근하는 고객이 많이 이용합니다. 아침 6시부터 다음날 오전 00시까지 영업 중입니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배달업무는 대표님이 도맡아 하십니다.

-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603
- 062)266-8877

**목표와 포부**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들께 언제나 펀(fun)하고, 편한 주유소가 되는 것이 목표이자 포부입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주유부터 세차까지 전 시스템을 셀프서비스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 편히 조금 더 싼 가격에 이용하시고, 즐겁게 카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가시라는 저희의 마음입니다.

**기름은 셀프, 매출은 점프**

사실 김형걸 대표는 리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고객의 연령층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면 기존의 주 고객층인 중장년 고객들이 불편해 발길을 끊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광주지사에서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업계정보와 풀 변경 시 장단점 등을 분석해주었고, 지난 8월 망월주유소는 우리 계열 주유소가 되면서 셀프주유소로 전면 리모델링하였다. 도심이 아닌 외곽에 위치한 주유소로서는 모험이었다.

“놀랐던 점은 어린신 고객들도 어려움 없이 셀프주유소를 잘 이용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S-OIL이 고객들에게 워낙 친숙한 이미지여서 기존 고객은 유지한 채, 젊은 고객층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죠. 덕분에 풀 변경을 하고 중장년 고객과 젊은 고객의 비율은 반반 정도가 됐고, 매출은 이전에 비해 2.5배는 늘어날 수 있었죠.”

세차까지도 전면 셀프 시스템으로 탈바꿈한 망월주유소는 또 하나의 변신을 앞두고 있다. 고객이 쉬어갈 수 있는 카페를 마련하여 활력 에너지까지 충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항상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고객님들께 언제나 편한 주유소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고객과 직원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주유소요.”

망월주유소에는 특별한 전략이 없다. 그저 단 한 번 들리는 고객일지라도 최대한 편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품질 좋은 기름을 주유할 수 있도록 돕는 마음을 지키고자 노력하겠다는 다짐뿐이다.



## 우리 가족

#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 Aromatics 생산과 우래구 사우 가족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의 향기가 불어오는 10월의 저녁, 우래구 사우의 가족을 만났다. 사우의 아내와 두 아들, 네 식구가 다 같이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오는 모습에 화목함이 가득하다.

누구보다 친한 가족, 서로를 존중해주는 가족  
우래구 사우의 가족들이 울산의 한 식당에 자리를 잡았다. 각각 7살, 9살의 두 형제 현중, 승민 군도 조용히 자신들의 자리를 지켰다. 아들이 둘인 집은 어머니의 목이 성할 날이 없다고 하는데 우래구 사우의 가족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듯하다. 일반적인 어린아이를 둔 가정과 달리 아이들은 우래구 사우와 아내 이은미 씨에게 엄마, 아빠가 아닌 어머니, 아버지라 부른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다.

“어떻게 보면 매우 작은 일이지. 그러나 다른 곳을 가도 다른 사람을 존중했으면 하는 마음에 어려서부터 꾸준히 교육 중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바르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제대로 잡혔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큼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제대로 자랄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10살도 안 된 두 형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 그런데 그 바람 또한 의젓하다.

“부모님께서 맨날 휴대폰 보시는데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아빠 휴대폰 너무 많이 하지?”  
둘째 우승민 군의 말에 아내 이은미 씨도 맞장구를 쳤다. 그러자 첫째 우현중 군이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도 자기 전에 휴대폰 많이 하잖아요.”  
아이들의 폭로 아닌 폭로에 멧쩍은 웃음과 작은 반성이 이어졌고, 분위기는 점점 더 화기애애했다.

### ‘지금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음식이 나오고 서로 맛있는 고기를 챙겨주며 먹는 모습이 정말 정겹다. 직접 먹는 것보다 서로 챙겨주며 먹는 것들이 더욱 많다. 현중, 승민 군도 서툰 젓가락질로 어머니, 아버지에게 고기 한 점 건네며 밝게 웃는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네 식구 모두 그들 없이 행복한 웃음뿐이다. 우래구 사우의 지금 이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지금 정말 행복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아이가 말을 부리면 지금의 행복이 다 무너지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딱 지금처럼만 서로를 위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이은미 씨도 마찬가지로 거든다.

“아이들은 건강하고 남편은 애정표현을 잘해줘 무엇보다 바라는 점이 없어요. 다만 남편도 저도 같이 일하는 입장이니 조금만 더 집안일을 도와주었으면 해요. 그거 외에 바라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 말대로 이대로만 쪽~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아진 해 덕분에 땅거미가 하늘까지 덮은 저녁, 식사를 마친 우래구 사우 가족들은 서로의 부른 배를 토닥이며 식당 밖으로 나왔다. 밤공기가 좋으며 가족끼리 산책을 하고 들어가겠다는 우래구 사우 가족의 행복한 뒷모습이 환하다.



우래구 사우가 가족들에게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아이가 말썽을 부리면 지금의 행복이 다 무너지니까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딱 지금처럼만 서로를 위하여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자녀가 아버지에게

"맨날 휴대폰 보시는데 많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연료 1리터 나들이  
사업장 인근 가볼만한  
장소를 추천합니다

진행 송경란 사진 디자인소호



경북 구미 '밤실벽화마을'

꾸밈보다  
가치 있는

정감  
더하기



경북 구미시는 국가산업단지로 유명해졌지만 옛사람들은 고려 말의 충신이었던 야은 길재 선생의 고택으로 기억한다. 이제는 잊혀가는 옛 선비의 이야기가 구미지사에서 약 2.5km만 가면 만날 수 있는 밤실마을에 벽화로 남아 있다.



밤실벽화마을은 구미 중심가의 바깥쪽인 도량동에 위치해 있다. 고려시대의 충신 야은 길재 선생이 낙향해 시문을 짓고 후학을 양성한 곳으로 유명한데, 그런 향학열이 지금도 남아서인지 구미고, 구미여고를 비롯해 9개의 학교가 밀집해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북적북적했던 마을은 주변에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부터 행인의 수가 줄고 골목 길은 자연스레 넓어졌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마을 주민들과 지역 입주 기업, 주민센터가 힘을 모아 2014년 벽화를 그리기로 뜻을 모았다. 다른 곳과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지역에서 초빙한 회화 전공자가 그린 게 아니라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 그림을 그렸다는 점이다.

주민들만큼 마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 주민들은 자신의 이야기, 고향의 이야기를 1코스 '야은 길재 선생 이야기길', 2코스 '배움과 나눔의 길', 3코스 '밤실 사람들 이야기길'에 담았다. 도산초등학교 정류장 도산유치원 입구에서부터 1코스가 시작되는데 마을의 정신적인 어른인 야은 길재 선생의 삶이 벽을 따라 빼곡히 그려져 교육효과가 높다.

명지유치원부터 밤실마을 만남의 광장 셋길까지 이어지는 2코스로 어린이의 상상력이 그림으로 박힌 듯하다. 운이 좋으면 유치원을 나서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재잘대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3코스는 만남의 광장부터 구미고등학교 교를 잇는 골목길인데, 1960~1980년대의 풍경들, 언젠가 밤실마을에 있었을법한 옛 가게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인지 그림 자체가 마을 같고 잘 익은 감이 매달린 감나무마저도 풍경처럼 느껴진다.

그림은 억지스럽지 않아 더욱 발길을 오래 붙잡는다. 자신이 사는 마을에 대한 애정이 고스란히 묻어난다. '타 지역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마을'이 목적이 아니라 '더 기분 좋은 내 마을'을 꿈꿨음직하다. 옛 가치를 잊지 않고 이웃을 생각하는 정다운 마음이 고스란히 덧칠되었다. 마을이 커 다 둘러보려면 30분가량이 걸리는데 중간에 마을안내센터 겸 카페가 있으니 쉬어 가도 좋다.



**구미 '밤실벽화마을'은?**

위치 경북 구미시 도량동 밤실마을 일대  
도로 문장로 8길~14길

**밤실벽화마을 방문 깨알정보**

찾아가기 구미역에서 역전로를 따라 500m 이동해 김천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산업로를 따라 168m 이동, 중앙시장네거리에서 도량동주민센터 방면으로 약 750m 이동하면 우측으로 도량동주민센터가 있다. 도량동 밤실마을 일대가 '밤실벽화마을'이다. 버스로는 구미남고 정류장, 도산초등학교 정류장에서 내려 갈 수 있다.

마을안내센터 밤실벽화마을 중심에 위치한 '마을카페 다락'이 벽화마을 안내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 남도의 아름다움을 담은 그릇

## 광주시립미술관

빛고을 광주는 예향이라 불릴 만큼 오래전부터 활발한 예술 활동을 자랑하는 도시다. 한국화의 대가인 의재 허백련, 서양화의 선구자 오지호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예술인은 광주의 자랑스러운 보배다. 이러한 광주 문화예술의 중심에는 광주시립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다.

### 시민이 만든 최초의 공공미술관

1970년대만 해도 외지에서 온 방문객이 택시를 잡아 “오지호 선생님 댁으로 갑시다”라 말하면, 기사는 두 말 않고 데려다주었다고 한다. 광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예술가를 대하고 존중해왔다는 말이다. 광주가 예향인 것은 미술인구가 유독 많은 것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한국화, 서양화, 조각, 미디어아트, 민중미술이 시작된 곳이며, 예술을 즐기는 사람이 많고 예술가를 많이 배출했다. 광주시립미술관이 화가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미술관으로 시작하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것도 이런 지역 특색에서 비롯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은 1992년 8월 지방예산 최초로 개관한 공립미술관이다. 개관 당시만 해도 미술관 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작품마저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역의 원로, 중견 작가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함은 물론, 전국을 돌아다니며 다른 지역 작가들에게 작품 기증을 요청했다. 이러한 광주 시민들의 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들 덕분에 광주시립미술관은 국내 공립미술관을 대표하는 지금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한국의 근·현대 미술과 남도미술을 중점적으로 정립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공립미술관으로서 교육, 창작지원은 물론, 지역에 연고를 둔 허백련, 오지호, 양수아, 임직순 등 유명 작고 작가의 작품부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약 4천여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또한 광주비엔날레 창설과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전시기획과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문화 광주'를 만들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곳**

지도상으로 보면, 광주시립미술관은 광주광역시의 한가운데에 있는데, 그만큼 접근성이 좋고 도심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들이 산책을 즐기며 여가를 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장이 되니 광주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또한 2년에 한 번은 이곳에서 광주비엔날레가 열려 세계 미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유명하다.

미술관 밖으로는 온 가족이 뛰어놀 수 있는 중외공원이 펼쳐져 있으며,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어린이대공원 등이 모여 있어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오는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은 편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어린이미술관(어린이갤러리)을 개관해 아이들이 작품을 구경하며, 함께 만들고, 그려볼 수 있는 장(場)이 된다.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밖에도 청년미술계를 지원하는 창작스튜디오 운영해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미술 관계 전문도서와 잡지, 국내외 전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미술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광주시립미술관에 가면 남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b>주소</b>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52
<b>대표번호</b>	062)613-7100
<b>관람안내</b>	평일, 주말, 공휴일 10:00~18:00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0:00~20: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휴관
<b>입장료</b>	일반 500원 / 청소년·군인 400원 / 어린이 200원 ※ 단체 인당 100원 할인 ※ 유아, 노인, 장애인과 동반인 1인, 국가유공자 무료

**오병희 학예연구사가 전하는 깨알정보**

- 하루를 비워주세요. 전시와 휴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중외공원과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어린이대공원까지 이용하다보면 하루가 모자랄지도 모릅니다.
- 아이와 함께 오세요. 어린이 전용 미술관부터 다채로운 체험활동까지 미술을 보다 재미있게 만나는 다양한 방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확인하세요. 전시에 참여한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주제로 하는 색다른 체험 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 미적체험 통해 창의력을 키워보세요. 아이부터 어린까지 각 연령층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 섬을 걷다

아름다운 섬이 품은 길을  
찾아갑니다

글·사진 전부순



2

시인 이생진은 자신의 시 '서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에서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단 "외로움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란 조건을 달았다. '서울엔 없는 것이 없다지만 서울에 없는 것이 섬에 있다. 서울에는 죽은 것이 많지만, 섬에는 산 것이 많다'면서 물고기와 미역·인정·나무뿌리, 그리고 영혼이 살아있다고 나열한다. 물론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곳이 어디 섬뿐이라만, 시인은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했던 옛말과는 달리 '섬에서 소를 길러 서울에 보내고, 서울에서 기죽은 사람을 섬에 보내라고 쓰고 싶다'는 말로 마지막을 여미었다.



모세의

기적이  
벌어지는

'공룡의 땅'

여수 사도 · 강진 가우도



(사도 둘레길 코스)

TIP.



※ 백야도선착장에서 대형카페리3호가 하루 3편(08:00, 11:30, 14:50) 왕복 운항.

1.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진 길은 절벽 트레킹의 시작점, 아름다리 해송이 빼곡하여 사도에서 가장 정감 나고 매력적인 산책로로 꼽힌다.
2. 사도는 추도, 중도(시루섬), 중도(간대섬), 장자도(진대섬), 연목섬(바위섬), 나골 등 7개 섬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마치 동화 속 나라로 들어가는 기분이다.



**여수 사도** 전남 여수시가 거느린 317개 섬 가운데 하나인 사도는 이러한 편지를 쓰기에 최적이지 않나 싶다. 사도를 가는 배편이 있는 곳은 여수여객터미널과 백야도선착장인데, 길손은 백야도선착장에서 대형카페리3호에 몸을 실었다. 오전 11시 30분 정각, 평일임에도 많은 손님들을 태운 배는 힘찬 동동소리를 허공에 남기고 부두를 떠난다. 개도를 지나 하화도에서 손님 대부분이 하선하고 상화도에서 주민 한 분이 내린 뒤 출항 한 시간 만에 '바다 한 가운데 모래로 쌓은 섬' 사도(沙島)에 닿았다.

공룡 화석지가 있어서일까, 백악기 후기까지 활동했던 실물 크기의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루스(Tyrannosaurus) 모형이 길 양편에 서서 두 눈을 부릅뜨고 길손을 맞이한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덤벼들 기세가 진정 길손을 반가워하는 공룡의 모습일까 잠시 생각하게 한다.

본섬인 사도는 추도·중도(간대섬)·중도(시

루섬)·장사도(진대섬)·나골·연목(바위섬) 등 7개 섬을 아우른 작지만 제법 큰 섬이다. 이중 유인도는 사도와 추도뿐. 임진왜란 때 성주 배 씨가 입도하고, 이어서 인동 장 씨가 들어와 마을을 이룬 섬, 첫인상이 깔끔하다. 지금은 20여 가구에 주민 스무 너댓 명이 고추와 마늘 농사, 고기잡이, 민박을 치며 살아간다. 추도를 빼고 다른 섬들은 방파제와 석교, 모래사장으로 연결되어 도보탐방이 가능하다.

사도탐방센터 뒷길로 들어서면 공룡테마공원이다. 많은 공룡 발자국 모형과 함께 백악기 전기에 활동을 했던 육식공룡 데이노니쿠스 모형도 숲속에 숨어 있다. 해안가를 접한 길이 야트막한 산으로 이어진다. 아름다리 해송이 빼곡한 길은 절벽 트레킹의 시작점, 사도에서 가장 정감 있고 매력적인 산책로다. 작은 언덕을 오르면 박석을 깔아 놓은 길옆으로 정자와 나무 의자가 다리섬을 도와준다. 바로 아래 기암괴석에 부딪는 파도와 함께 화산 폭발의 부산물인 크고 둥글둥글한 바위들이 멋진 파노라마를 보여주어 여기가 화산지대였음을 알려준다.

에둘러 작은 산을 내려오면 중도로 이어주는 사도교를 만난다. 다리 아래는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된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다. 약 7천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후기에 형성되어 아시아에서는 가장 젊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다. 공룡이 살던 시절, 이 일대는 강물이 흐르는 육지여서 곳곳에 넓은 호수가 있었다. 왕성했던 화산활동이 휴식기에 들자 공룡들은 물을 먹기 위해 호숫가에 나타나 흔적을 남긴 게 공룡의 족적이다. 인근의 추도·낭도·목도·적금도까지 두 발 혹은 네 발로 걷는 초식공룡(조각류), 네 발로 걷는 목이 긴 초식공룡(용각류), 그리고 육식공룡(수각류)이 남긴 발자국이 모두 3천 8백여 점. 새 발자국, 나무, 복족류(소라같이 생긴 연체동물화석), 작은 무척추동물이 기어간 흔적까지 발견, 규모로는 세계 최대다. 호기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내려가 살펴보니 퇴적층 곳곳에 발가락 세 개가 뚜렷하게 찍힌 발자국이 선명하게 보인다.

공룡(恐龍, Dinosauria)이란 '무서운(deinos) 도마뱀(saurus)'이란 뜻으로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지금부터 약 2억 2천5백만 년 전, 중생대 트라이 아이스기에 처음 나타나 중생대 백악기 말



퇴적층 곳곳에서 발가락 세 개가 뚜렷하게 찍힌 발자국을 볼 수 있다.



시루섬(중도)에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착안했다는 거북바위와 용암에 쓸려 가던 나무가 화석이 된 규화목 등 진귀한 기암들이 산재해 있다. 사진은 거대한 사람 '열얼굴바위'이다.

기까지 무려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던 동물로 가장 크고 길며, 무서운 파충류였다. 하늘에는 익룡, 바다에는 어룡과 수장룡이 있었다. 공룡이 파충류와 다른 점은 몸 아래로 곧게 뻗은 다리와 두개골 안구 뒤에 이궁형 머리뼈가 있다는 것, 알을 낳고 걷기와 달리기에 능했다는 사실이다. 크기는 60cm에 3~4kg인 양증맞은 콤프소구나투스부터 40m가 넘는 세이스모사우루스까지 다양했다.

다리를 건너면 중도다. 여기는 중도를 연결한 모래톱이 있는데, 양면이 모두 바다여서 이름도 양면해수욕장이다.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폭 50m의 모래해변이 드러나 흔히 볼 수 없는 광경을 보인다. 조개껍질이 부서져 생긴 모래는 색이 곱고 날이 맑으면 물빛은 에메랄드 색깔을 띤다. 이곳을 건너면 왕성한 화산활동으로 이뤄진 중도 즉, 시루섬이다. 사도의 섬들 중 볼거리가 가장 많은데, 이순신 장군이 보고 거북선을 착안했다는 거북바위와 거대한 사람 열얼굴바위, 용암에 쓸려 내려가던 나무가 화석이 된 규화목 등 진귀한 기암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흥미로운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리다 빨리 식으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용의 머리 용두암은 제주에 있고, 용의 꼬리 용미암은 이곳 사도에 있다'는 재치있는 말에 작은 웃음을 머금는다.

다시 길을 돌아 나와 사도해수욕장을 지나 마을 남쪽으로 들어선다. 주변에 있는 돌로 삐뚤삐뚤 쌓은 담장이 처마와 맞닿아 있다. 사도의 최고 높이는 49m, 주변은 암석 해안으로 둘러싸여 여름에는 태풍과 해일, 겨울에는 바람에 취약하다. 따라서 추위는 물론 바람으로부터 집과 가축을 지키려 오로지 돌로만 아무렇게 쌓은 담은 크기와 형태가 일정치 않다. 향토적 서민 정서가 그대로 녹아난 때문일까. 오랜 시간이 흘러도 무너지지 않고 세월과 함께 농익은 돌담, 우리에게 삶의 흔적이다. 선착장 오른쪽에 봉긋이 솟아난 바위언덕에는 250살 먹었다는 여섯 그루 해송이 늙은 자태로 오늘도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런데 사도에는 길손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가 없다. 먼저 가게가 없어 생수 한 통 사기 어렵다. 구판장이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에만 운영한다. 또 식량이 없어 섬에 들어가기 전 마실 것과 먹을 것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해마다 음력 2월 25일경이면 본섬과 추도 사이에 바다가 갈라진다. 일명 '모세의 기적'인데, 이때 7개 섬이 'c'자로 이어지는 장관이 연출된다. 한편 사도 앞 1km 남짓한 거리에 현재 1가구만 살고 있다는 추도가 병풍처럼 앉아 있다. 정기 배편이 없어 찾는 사람이 드물지만, 사도 마을이장에게 부탁하면 낚싯배로 오갈 수 있다. 커췌이 쌓인 퇴적암층의 절경, 공룡발자국 화석과 1백여 년이 넘는 마을 안길 돌담은 섬의 귀한 보물이다. 인적 없는 해안가 바위에 앉아 그냥 머무르고 싶은 호젓함을 누릴 수도 있다.

헤아릴 수 없는 시간만큼 먼 옛날, 이제는 지난 생명이 된 무수한 공룡들의 숨소리가 스민 곳에서 문득 동심으로 돌아가 잊어버린 손편지를 쓸 수 있는 여유를 이곳 한국의 주라기공원에서 가져보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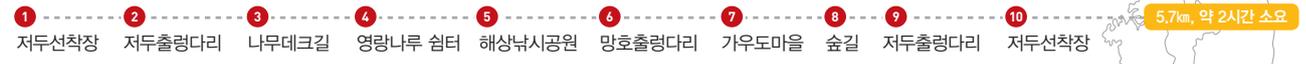


중도(간대섬)에서 중도(시루섬)를 이어주는 모래톱은 밀물 때는 잠기고, 썰물 때는 폭 50m의 모래해변이 드러난다. 모래톱 양면이 모두 바다여서 이름도 양면해수욕장이다.

전라남도 강진군 도암면 신기리에 속한 가우도는 바다와 숲, 사람의 향기가 어우러진 향기의 섬이다. 멀리 망호출렁다리와 함께 해상낙시공원이 떠있다.



〈함께海길 코스〉



**강진  
가우도**

**출렁다리 건너 '함께海길' 걷기**

가우도는 남도여행 1번지 전남 강진 도암만이 품은 작은 섬이다. 섬 모양이 소의 명에처럼 생겼다고 이름 붙인 가우도(駕牛島)에 2011년, 길이 438m, 폭 2.6m인 저두출렁다리가 놓였다. 주민들은 자동차가 다니는 다리를 원했지만, 섬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에 밀려 도보교로 대치됐다. 바다를 걸어서 섬에 들어간다? 얼마나 멋지고 낭만적인가. 섬 주민들의 물 나들이와 길손들의 섬 나들이가 쉬어진 사실이 입소문을 타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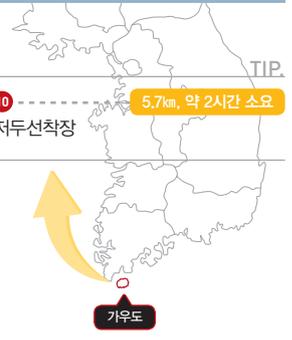
저두선착장에서 다리를 건너 왼쪽 해안을 따르는 나무데크길로 들어간다. 바람 · 바다 · 숲, 그리고 사람이 어우러진 '함께海길'이다. 굴 껍질 깔린 모래사장을 지나면 시인 김영랑(1903~1950)을 기린 영랑나루 쉼터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 길 위에' 같은 영롱한 시가 걸려 있는 공간, 사람들은 사색에 잠긴 민족시인 영랑의 동상 옆에 줄지어 앉아 사진 찍기 바쁘다.

강진에서 나고 자라 강진보통학교를 졸업한 영랑은 휘문의숙에 들어간 뒤 1919년 기미독립운동 때 구두안창에 독립선언문을 숨겨 강진 4·4운동을 이끈 대가로 6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1930년 창간한 <시문학>지와 1934년 <문학>지를 통해 우리 현대시의 새 장을 열었고, 1935년 <영랑시집>과 1949년 <영랑시선>을 출간하며 일제강점기 내내 창씨개명과 신사참배, 식발령을 거부, '대조선인'으로 의롭게 살다가 한국전쟁 때 당한 부상으로 47살로 타계할 때까지 87편의 시를 남겼다.

이미 건너온 출렁다리와 똑같은 망호출렁다리가 멀리 보인다. 가우선착장에서 망호마을을 잇는 716m 다리로 2012년에 놓였다. 마을 앞 바다에는 가두리 낚시터인 해상낙시공원이 떠 있고, 가우마을을 알리는 큼직한 선돌 끝 선착장에도 선남선녀들의 낚시가 한창이다.

'함께海길'은 가우선착장에서 마을로 이어진다. 언덕 위에는 한옥으로 지은 펜션이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오래 전에 문 닫은 가우분교는 운동장에 잡초만 무성한 채 쓸쓸히 방치돼 있다. 농토라고는 텃밭 밖에 없어 주민 대부분은 어업으로 살림을 꾸린다. 지금은 전어철, 전어를 잡기 위해 마량 앞바다와 완도까지 나간다.

안심하고 걸으며 사유할 수 있는 '섬길'은 사람이 주인이다. 시대의 멘탈을 풍부하게 해주는 소중한 토양에서 길손은 해안을 따라 후박나무 · 굴거리나무 · 물푸레나무 · 곰솔 · 엄나무 등이 우거진 단아한 숲길을 지나 도암만 바다를 마주하며 다시 저두출렁다리를 건너 비로소 작은 섬을 내선다.



TIP

5.7km, 약 2시간 소요



## 휴식과 신체 균형

##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 엎드리는 자세 습관

엎드리는 자세는 몸의 근육이 이완되는 편한 자세다. 당신도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무의식 중에 턱을 괴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 목과 골반을 바로 잡는 자세 등을 숙지하고 있는 게 좋다.

등을 곳곳이 편 자세가 허리에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이 자세를 일상생활에서 계속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

학교에서 필기를 하거나, 직장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책상에서 책을 읽을 때 모두 일부러 의식하지 않아도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엎드리는 자세가 모든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각자의 건강상태와 질병 유무에 따라 엎드리는 자세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자세'가 안 좋은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자세는 괜찮은지 알아본다.

### 양 손으로 턱을 괴는 자세, 오래 유지하지 않으면 괜찮아

먼저 의자에 앉아 양손으로 턱을 괴고 앉는 자세는 양 어깨의 근육이 경직되기 쉽다. 턱을 받치기 위해 목이 앞으로 나오게 되니 거북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자세다. 다만 오랫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지만 않는다면 척추에 문제될 것은 없다.

문서 작성 중 고민이 될 때, 혹은 쉴 때 무의식적으로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때 턱을 괴는 손이 있는 어깨근육이 경직되기 쉽고 경추가 비틀어진다. 팔꿈치나 어깨, 손목 등이 저리게 되고 더 오래되면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이 자세는 양손으로 턱을 괴는 자세보다 더 위험한 자세로, 근육이 한쪽 방향만 발달하고 척추가 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하지 않은 게 좋다.

**책상에 엮드리기,**

**불편한 쪽으로 자세 취하며 골반 바로 잡기**

업무나 공부 중에 자연스럽게 쉬는 자세로 흔히 책상에 엮드리곤 한다. 쉬기 위한 자세이기는 하지만 허리를 과도하게 숙이게 되므로 오래 유지하는 걸 추천하지는 않는다. 쉬기 위한 자세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예 취하지 않을 수는 없는 자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을 굽히고 허리를 접는 상황이므로 오장육부의 위치가 편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자세는 소화불량, 두통, 만성피로 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식후에는 이 자세를 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충고한다. 또 안압이 올라가므로 시력감퇴를 유발하기도 하니, 짧게 쉬 때만 권한다.

책상에 엮드릴 경우 흔히 한 쪽 팔을 베거나 두 팔을 겹치게 되는데 이때에도 특정 팔이 아래로 가는 경우가 많다. 오른팔을 베거나 아래에 두는 상황에서는 골반이 왼쪽방향으로 틀어지기 쉽고, 반대의 경우 오른쪽으로 틀어지기 쉽다.

팔베개를 하고 누울 경우 머리를 돌리기 편한 방향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편하면 허리뼈, 즉 경추가 왼쪽으로 틀어진 경우라고 예측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는 오른쪽으로 틀어진 경우다. 불편하더라도 편한 자세의 반대로 자세를 취하면 틀어진 허리뼈(경추)와 골반을 바로잡을 수도 있다.

**책상에 엮드리는 자세**



머리를 돌리기 편한 방향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는 게 편하면 허리뼈가 왼쪽으로 틀어진 경우라고 예측할 수 있다.



불편하더라도 편한 자세의 반대로 자세를 취하면 틀어진 허리뼈와 골반을 바로잡을 수 있다.

**오른손으로 글쓰기 뒤엔 굳은 왼팔 이완**

바닥에 엮드리는 자세는 목과 허리뼈가 앞으로 돌출된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 자세도 본인의 몸 상태에 따라 취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지만 오래 유지하는 건 좋지 않다. 팔베개를 할 경우 어깨 근육이 굳고,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이 굳기 때문이다. 엮드린 자세에서 등을 밟는 경우가 있는데, 흉추와 요추의 후방 돌출인 경우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전체를 밟기보다 후방 돌출된 부위만을 밟는 것이 좋다. 돌출되지 않은 일반인의 경우 등과 허리를 밟으면 안 되고 전만인 경우 아주 위험하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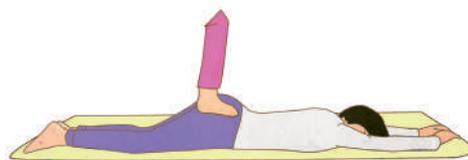
글쓰기는 오른손잡이나 왼손잡이나에 따라 한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오른손잡이의 경우 오른팔을 사용하기 위해 왼팔이 중심을 잡고 오른팔은 돌리게 된다. 중심을 잡는 왼팔은 근육이 굳어지기 쉽고 오른팔이 들린 상태에서 글을 보기 위해 얼굴은 왼쪽으로 기울어지기 쉽다.

허리와 목에 무리가 가기 쉬운 자세이므로 삼십 분에 한 번 이상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어주는 게 좋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왼쪽으로 치우친 목을 오른쪽으로 풀어주고 굳은 왼팔을 이완시켜주는 게 좋다.

**바닥에 엮드리는 자세**



척추전만증(전방 돌출)이 있는 경우 바닥에 엮드리는 자세는 피해야 한다.



등뼈와 허리뼈의 후방 돌출이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밟아주면 좋다. 전체를 밟기보다 후방 돌출된 부위만을 밟는 것이 좋다.

**나의 롤모델**

사우의 롤모델로부터  
성공 열쇠를 찾아봅니다

글 정상혁(계기과)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한  
행동가**

계기과 정상혁 사우의 롤모델  
'마틴 루터 킹' 목사





## • 내 인생의 롤모델 •

루터 킹 목사를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교과서 속에 나온 루터 킹의 모습을 보고 어린 학생이었지만 크게 감명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민권을 보장하는 법, 인종차별 없이 투표권을 보장하는 법률이 제정된 건 루터 킹 목사의 헌신과 희생이 컸다고 해요. 당시 미국사회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했죠. 루터 킹 목사의 정신은 인류 역사에 남는 큰 자산이며, 당시 미국 존슨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 업적이기도 했습니다.

루터 킹 목사로부터 가장 닮고 싶은 점은 박애정신,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입니다. 루터 킹 목사의 주옥같은 연설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최악의 죄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루터 킹의 말대로 옳은 일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겁니다.

내 인생의 롤모델,  
마틴 루터 킹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날이 언젠가 오리라는 꿈입니다.



- 마틴 루터 킹

### 인종차별당한 목사의 아들, 미국 인권운동의 상징으로

1963년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평화대행진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Have a Dream)’는 제목으로 했던 연설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다.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흑인해방운동 지도자이자, 인권운동을 이끈 목사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킹 목사는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인종차별주의자 백인에게 멸시와 폭행을 당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다. 킹 목사는 차별적 좌석제에 대한 버스 보이콧 운동(몽고 메리 버스 보이콧 투쟁)을 계기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었고, 워싱턴 대행진 등을 비롯한 수많은 운동을 이끌어 공민법권·투표법권의 성립을 촉진시켰다. 1964년에는 노벨평화상을 받기도 했지만 4년 뒤 테네시주 흑인 미화원 파업 운동을 지원하러 갔다가 멤피스에게 암살당해 39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킹 목사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꿈은 서서히 결실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제는 버스나 식당에서 흑인을 차별하는 모습은 거의 볼 수 없게 됐다. 미국은 1986년부터 킹 목사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그의 정신을 기리고 있다.



## 열린 서재

자료실에서 사우들이 가장 많이 읽은 인기 도서를 소개합니다

도움말 정재연(반디앤루니스 북매니저) 자료제공 박은정(기술교육팀)

# 맛집탐방 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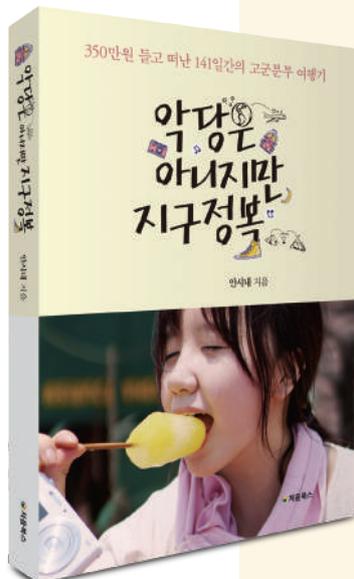
# 여행을 통한 성장

##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안시내



나는 지금 너를 만난 순간은 무척 유쾌하지만 때때로, 심지어 여행 중에도 아주 깊은 호수에 빠진 것 같은 큰 고독과 불행을 느껴 하지만 그건 축복이야. 불행은 예술가를 만들지, 불행은 예술가를 만들지 불행을 모르는데, 과연 행복이란 것이 뭔지 알 수 있을까.

\_ 여행작가 안시내



TV에 나온 여행지의 아름다운 경치, 줄서서 먹는다는 맛집, 인증샷이 필수인 관광지 나오지 않는 여행서다. 여행서의 흔한 정보는 찾아볼 수 없지만 현 지인의 진짜 생활과 모습이 담긴 책이다. 이 책을 쓴 저자는 155센티미터의 아담한 키에 아직 옛된 스물두 살의 여대생으로 단돈 350만 원만으로 비행기값, 숙박, 식사를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안고 141일 동안 무모한 도전을 감행한 안시내씨다.

저자는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우리 돈으로 하루 5천 원 이하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현지인의 음식을 사먹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관광이 아닌,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대체 350만 원으로 어떻게 그 많은 나라(말레이시아, 인도, 모로코,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이집트, 태국)를 여행한건지 궁금하다가 인간다운 그녀의 여행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된다. 길에서 만난 인도 아이를 매일 껴안고 다니다가 헤어짐에 눈물짓고, 모로코에서는 마음씨 좋은 여관 주인을 만나 가족처럼 지내기도 한다. 인도에선 고산병에 걸려 고생하던 그를 집으로 초대해 약을 건네준 현지인과 따뜻한 정을 나눈다.

저자는 이런 여행 이야기를 조금씩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제는 페이스북 스타가 되었다. 페이스북 친구들이 그녀를 '작은 거인'이라고 부른다.

###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연찮게 토크콘서트 '화통'이란 프로에서 저자인 안시내씨의 강연을 보게 되었고, "350만 원으로 3개 대륙 8개국, 141일간 지구 반 바퀴를 여행한 작은 거인의 배낭여행은 어땠을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게 되었다. 유명 관광지 위주로 소개하는 일반적인 여행 서적과는 다른 현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자가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적은 에세이로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 글 최준걸(이익개선팀)

※ 본 도서는 지난 10월 1~31일 공장 자료실에서 높은 대여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 문화 콘텐츠 +

〈악당은 아니지만 지구정복〉과 함께 즐기면 좋을 타 장르 콘텐츠

## { 영화 }



### 〈김종욱 찾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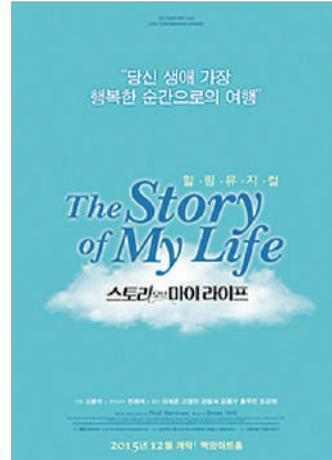
첫사랑을 찾아 나선 여정

처음에는 첫사랑이 떠오르다가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영화다.

지나치게 강한 책임감과 융통성도 없는 기준(공유)은 회사에서 잘린 뒤에 '첫사랑 찾기 사무소'를 오픈한다. 첫 고객은 첫사랑 '김종욱'을 잊지 못하고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거절한 서지우(임수정)다. 회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첫 의뢰를 성공시키기 위해 한기준은 '김종욱 찾기'에 나서고, 서지우는 그의 지나친 열의에 지쳐간다. '김종욱'을 찾아나서는 두 사람의 여정을 지켜보다 보면 저절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곱씹게 된다.

개봉 | 2010년  
감독 | 장유정  
주연 | 공유, 임수정

## { 뮤지컬 }



### 〈스토리 오브 마이라이프〉

우리 기억 속 소중한 시간으로 떠나는 여행

우리 기억 속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나 한번쯤은 했을 것이다. 〈스토리 오브 마이라이프〉는 30년 지기 토마스 and 앨빈, 두 남자가 잊고 있었던 추억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다.

토마스는 대학에 입학한 이후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 앨빈과 점점 사이가 멀어진다. 토마스는 많은 책을 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만 모든 글의 영감이 자신의 친구에게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바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나는 물음이 가볍지 않게 다가온다.

기간 | 2015년 12월 1일~2016년 2월 28일  
장소 | 백암아트홀

### 10월 온·오프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Top 5

#### 교보문고 + 예스24

- ① 〈미움받을 용기〉\_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 ② 〈라면을 끓이며〉\_김훈
- ③ 〈언제 들어도 좋은 말〉\_이석원
- ④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_채사장
- ⑤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_사이토 다카시

- ① 〈미움받을 용기〉\_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 ② 〈기대를 현실로 바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힘〉\_사이토 다카시
- ③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_채사장
- ④ 〈오베라는 남자〉\_프레드릭 베르만
- ⑤ 〈출동! 슈퍼왕스 세계 국기카드 120〉\_편집부

이제

세상

햇살나눔

언제나 이웃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그리며  
변치 않는  
마음으로  
온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는  
햇살나눔의  
진심 어린 활동을  
매달 정리해  
소개합니다.



햇 살 나 눔 현 장

연탄  
한 장에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의 연탄나눔기

글 한윤철(운영지원팀) 사진 전부순



일찍 찾아온 추위에 월동 준비로 분주한 10월의 막바지, 우리회사가 소외이웃의 겨우살이 채비를 돕기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기'에 나섰다. 10월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개미마을'에서 진행된 이번 나눔 행사에서 마하서 CEO와 햇살나눔봉사단 100여 명은 가파른 골목에 인간 띠를 만들어 연탄을 날랐다. 이날 우리회사는 총 5만 장의 연탄을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에 기증했다.

마하서 CEO는 봉사단과 어울려 연탄을 나르며 "연탄은 특히 서민 가정의 중요한 난방 에너지 수단"이라며 "오늘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임직원 봉사단의 정성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회사는 저소득가정의 난방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마다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본부'를 통해 연탄을 기부하며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

## 연탄나눔 후기

8년째 찾은 개미마을,  
고됨도 잊게 하는 봉사의 즐거움

글 김명현(운영지원팀)



기온이 갑자기 떨어져 쌀쌀한 10월의 마지막 주, 올해도 어김없이 서울 마포구의 개미마을에 햇살나눔봉사단이 모였습니다. '사랑의 연탄나눔기'가 올해로 벌써 8년째에 접어들어 반갑고 낯익은 얼굴들이 많습니다. 모두들 도구를 착용하고 대열을 갖추어 연탄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염려스러웠던 아침 날씨와 달리 기온도 적당히 선선해져 봉사하기에 한결 수월했습니다.

연탄 봉사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몸으로 느끼기에는 연탄 한 장이 소충 한 자루 무게가 될 법한데, '연탄 배달 1천 장'을 넘기고부터는 고된 움직임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뜻깊은 일을 위해 모인 분들이 내뿜는 긍정적인고 밝은 기운을 받아 힘을 내어 무사히 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연탄을 모두 나른 뒤 모여서 간식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개미마을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은 조용한 동네에 온통 알록달록한 색으로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여유 없는 일상생활에선 발견하기 힘든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봉사를 마치고 연탄 트럭이 올라가기도 힘든 급경사의 외길을 내려오니 그때서야 몇 시간 동안 잊고 있던 서울의 소음이 다시금 귀에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바쁘게 다니는 큰길과 언덕 입구에 새로 올라서는 신축 건물 현장은 언덕 위와 사뭇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과 봉사하면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개미마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함께 누리길 기대합니다.





## 듬직한 소방영웅들의

## 선진 소방 체험

### 소방관 해외 우수 소방시설 견학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소방영웅지킴이 프로그램 일환인 소방관 해외 우수소방시설 견학이 10월 13~21일 7박9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번 견학은 소방관들에게 해외 우수 소방시설·기관 견학과 안전시스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선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국내 소방현장의 안전을 제고하고 소방관들의 글로벌 리더십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서 선발된 총 22명의 소방관들은 서유럽 4개국(독일·영국·프랑스·스위스)을 순회하며 화재진압 전술, 진압 훈련모델 체험, 화재안전 교육 등을 비롯해 구조·구급 관련 선진 시스템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견학단은 먼저 영국에 도착해 런던소방학교와 소방대학교를 방문하고, 대영박물관 등의 안전시설도 둘러봤다. 이어 프랑스에서는 에펠 타워의 안전시설과 세느강 유람선을 비롯한 긴급구조망에 대해 알아본 뒤 파리소방본부와 소방학교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났다. 특히 긴급의료지원서비스(SAMU), 긴급환자구조대 등 견학은 소방대 주축의 선진적 구난체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우수사례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루체른 지역시민을 위한 안전시설을 견학하고, 인터라켄에서 융프라우구조대를 만나 산악지역 구조사례를 접했다. 중착지인 독일에서는 소방용품인증시험소에 들러 철저한 인증 관리제도 등을 접했다.



# 해양 수호의 고단함 달랜

# 달콤한 휴가

## 해양경찰 부부 휴(休) 캠프

글 한윤철(운영지원팀)

우리회사가 '소방영웅 부부'에 이어 해양경찰 부부에게 뜻깊은 휴식의 기회를 선사했다. 10월 6~8일 2박3일 동안 제주도 일원에 '해양경찰 부부 휴(休) 캠프'를 마련하고, 해양경찰과 그 배우자 총 70명을 초청해 달콤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우리회사는 2013년에 '해양경찰지킴이' 협약을 통해 기업체로는 유일하게 해양경찰 후원을 시작한 이후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번 행사에는 특히 해상과 해안·낙도 근무 등 특수한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장기근속 현장 근무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해 스트레스 완화와 부부에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기회가 되도록 했다. 거친 환경을 이겨내고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온 해양경찰들은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 속에

서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업무 의욕을 충전했다.

제주에 도착한 캠프단은 식사 뒤 에코랜드를 둘러보며 3일 여정의 첫 발을 땀다. 뒤이어 서귀포칼호텔에 여장을 풀 뒤 참석한 개회식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이튿날 성산일출봉을 비롯해 탁 트인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풍광을 만끽한 캠프단은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체험과 관광을 이어간 뒤 만찬과 레크리에이션으로 알찬 여정을 마무리했다.

우리회사는 2013년 해양경찰 영웅지킴이 프로그램 가동 이래로 이번 캠프를 비롯해 모범 해양경찰 표창, 공상 해경 격려금, 순직 해경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후원을 지속하고 있다.



## 장애 뛰어넘은

## 감동의 완주

### 장애인 감동의 마라톤

글 신영철(운영지원팀)  
사진제공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우리회사는 올해로 9년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뛰는 '감동의 마라톤'을 후원하고 있다. '감동의 마라톤' 후원은 장애인의 사회 관계형성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나눔 사업이다. 올해 감동의 마라톤 발대식은 10월 22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류열 사장과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서영길 이사, 이봉주 마

라토너 등 마라톤 참가자와 가족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해 완주 의지를 다졌다. 류 사장은 장애인 마라토너 및 동반주자들의 손을 잡고 격려하며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땀 흘린 시간이 보람찬 결실로 이어지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마라톤 참가단은 독일로 날아갔다. 10월 25일 개최되는 프랑크푸르트로 국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올해 대회에는 전 세계 4만 5천 명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해 희망과 우정의 레이스를 펼쳤다. 우리 참가단은 장애인 마라토너 16명과 그 외에 동반주자들로 구성된 가운데, 독일 현장에서 감동의 역사를 새로 썼다. 지적장애 3급을 가진 정숙이 선수가 풀코스 도전에 5시간 3분여만에 결승선을 통과한 것이다. 경남 의령군의 '사랑의집'에서 생활하는 정 씨는 일반인도 도전하기 힘든 풀코스를 우리나라 여자 지적장애인으로서는 최초로 완주해냈다.

이와 함께 발달·지체장애인과 청·시각장애인 등 우리 참가단 선수들은 미니, 하프, 풀코스 등에서 뜨거운 도전을 이어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에게 의지해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모습은 전 세계 참가자들에게 몽글한 감동을 안겨줬다.





햇살 나눔 단신

## 문화예술&나눔캠페인 '주현미 콘서트' 공연

트로트의 여왕 주현미 씨가 문화예술&나눔캠페인 공연 무대에 섰다. 10월 29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주현미 콘서트'는 초청받은 관객 300여 명에게 맛깔스러운 트로트 무대를 선사했다. 이날 공연은 장르 선호도를 고려해 어른들만을 위한 무대로 꾸며졌다. 이에 따라 사전신청으로 무료 티켓을 받은 지역주민을 비롯해 우리 임직원과 인근 직장인 등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특히 데뷔 31년 차를 맞은 가수의 관록을 보여주듯 객석에는 주현미씨의 오랜 팬들이 포진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모든 관객이 히트곡들을 연이어 따라 불러 눈길을 끌었다. 우리회사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사 사옥을 개방해 문화예술&나눔캠페인 일환의 무료 공연을 열고 관객을 기다린다.

※ 티켓 문의 원유진(운영지원팀) 02-3772-5064



## 울산복지재단 지역 쌀 수매

울산복지재단이 지역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농가 수익에 보탬이 되기 위해 3억 원 상당의 쌀을 수매했다. 수매 행사는 10월 26일 온산농협 삼평 경제사업장에서 김용연 전무와 신장열 울주군수, 정차길 온산농협장, 작목반과 농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울산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일대의 친환경 우렁이 쌀 생산단지인 버들 매입했는데, 이들 쌀을 지역아동과 사회복지단체 등에 기부해 나눔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왔다. 그동안 매입한 쌀은 9만 4천349포(40kg/포) 62억 3천만 원 상당이며, 올해 쌀 매입량은 4천300포(40kg/포)로 온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쌀 생산량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 인생은 배움의 연속

# 봉사로 얻은 깨달음

## 정유생산부봉사단 수련어린이집 장애어린이 운동 활동 보조

글 안중홍(정유과)



2015년 희망찬 기운을 등에 업고 새해를 맞이 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더니 이제는 제법 햇볕 따스한 오후에도 칼바람이 불니다. '이렇게 또 겨울은 소리 없이 오고 곧 새해를 맞이하겠지'라는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납니다. 그리고 보니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곰씹어보게 됩니다.

올해 정유생산부봉사단은 수련어린이집의 장애아동들을 매달 한 번씩 만나 중증 장애아동들의 '보치아' 활동을 보조합니다. 처음에 어린이들과 보치아라는 운동을 하게 됐을 때 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습니다. 보치아는 공

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순서대로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신체 사용이 불편한 장애아동들에게는 고난이도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들에게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스포츠의 개념을 뛰어넘어 숫자와 색 인지 등 교육적인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 경기는 장애인 올림픽인 '페럴림픽'의 종목 중 하나인데, 이런 봉사를 하게 된다면 보치아가 어떤 스포츠인지 정도는 미리 알고 참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봉사는 10월 26일에 진행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만난 아이들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소년체전 메달리스트들이라서 그런지 아이들의



어깨가 든든해 보입니다. 저 어깨에 실린 힘이 커지는 데 우리 봉사단도 보탬이 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편으론 말만 건네도 수줍어 하던 사춘기 소녀들이 이젠 제법 인사를 건네고 웃어주기까지 하니, 이런 미소를 마주하는 순간 참 보람됩니다. 그중 유독 내 눈에 띄던 소녀, 유나(가명)가 있습니다. 첫 봉사에서 아이들을 만났을 때 유나의 눈빛을 기억합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보치아 감독님은 봉사단과 수연복지재단 어린이집 장애어린이들간의 친선경기를 제안했습니다. 봉사단은 흔쾌히 응하면서 '눈치껏 하라'는 수연복지재단 실무자의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사이 나도 모르게 승부욕이 발동했습니다. 결국 유나와의 게임에서 그만 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순간 서늘해지는 등골,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바늘같이 날카로운 시선... 단순히 재미삼아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전문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유나는 자존심에 단단히 상처가 난 모양이었습니다. 분위기 전환 삼아 다시 한 번 게임을 했고, 유나는 나를 이겼습니다. 그래서야 밝아지는 녀석의 표정을 보며 비로소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나는 수연복지재단 보치아 꿈나무들을 전문선수로 대합니다. 마냥 사랑을 줘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열정과 마주하니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보치아 활동을 도울 때면 더욱 더 힘내라고 응원하고 자세도 살피주면서 보조하고, 격의 없이 실 때는 아빠같이, 삼촌같이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나의 그때 그 눈빛이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침을 준 것 같습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속이라더니 봉사로 만난 장애 어린이에게 이렇게 또 한 가지를 배워나갑니다. 다음에는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될지 벌써부터 설렙니다.

**\* 보치아**

뇌성마비 증증  
장애인과 운동성  
장애인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하여 승부를  
겨루는 경기다.



독자  
광장

S-OIL MAGAZINE

Vol.408

2015 November



# Quiz

두 사진 가운데 서로 다른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 다섯 군데)

• 지난호 퀴즈 당첨자

주요상품권

정주영 안전과

김가현 석유화학운영팀

반철희 중부네트워크관리팀

백성민 배산공원주유소(전북 익산시 동서로)

USB저장장치

이석범 올레핀사업개발팀

정성찬 전주지사

전진남 이화산업주유소(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운두령로)

한광윤 신한주유소(전북 정읍시 충정로)

# 아하, 아랍어!

기초적인 아랍어를 배워봅니다.  
일상에 쓰이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익혀보세요.

자신을 소개할 때

홍길동 أنا 저는 홍길동입니다.  
아나 홍길동

감사를 표할 때와 이에 답할 때

아크시 감사합니다. لوفع 천만예요.  
슈크란 아프완

헤어질 때

탐알سلام 잘 지내세요.  
마 아앗 쌀 라 마

종업원을 부를 때

تحسول 저기요!  
라우싸마하타



# 이달의 엽서



**<No.1 주유소> 광주 삼보주유소**  
교육과 실천으로 고객 웃음을 생각한다는 운영 철학이 인상 깊습니다.  
\_ 김은근(빛가람주유소,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내 마음의 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관심 있었던 문화 콘텐츠를 적절히 소개해줘 흥미로웠습니다.  
\_ 김상범(특수제품영업팀)



**<섬을 걷다> 제주 비양도**  
언젠가 꼭 한 번 가보고 싶은 섬이네요.  
\_ 신호근(동력4과)



**<100세 습관> 호흡 자세 습관**  
평소 취하던 자세가 호흡에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_ 하도광(고령, 울산시 남구 대학교)



**<햇살나눔 현장> 어머치 치어 방류 참가기**  
에스-오일 서포터즈로서 가족과 참가한 봉사 소식을 접해 영광이었습니다.  
\_ 서형우(고령,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햇살나눔 후기> 해말어린이집 자연학습 동행 체험**  
어려움을 가진 아이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활동은 정말 감동적인 일이에요.  
\_ 문중원(Aromatics생산2과)

## 〈자연의 소리〉



한 해의 끝자락을 살짝 들추고  
자연은 겨울옷으로 갈아입는다.  
나목이 된 모습과 색깔은, 땅의 모습과 닮아간다.